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전북형 미래학교 조성 '속도'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음 2월 26일) 제32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6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김동욱 센터장과 삼성 멘토단, (사)스마트 CEO 포럼 회원, 스마트 공장 참여를 희망하는 43개 도내 기업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본격 추진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상생협력 비전 선포

전북도-삼성전자-스마트CEO 포럼 간 삼각 공조 유지

대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전북경제 생태계 진화 '한 축'

전북도가 삼성전자,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 포럼(이하 스마트 CEO 포럼이라 한다)과 손을 잡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기업 유치와 더불어,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김관영 도정의 주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16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김동욱 센터장과 삼성 멘토단, (사)스마트 CEO 포럼 회원, 스마트 공장 참여를 희망하는 43개 도내 기업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2일 포럼 발대식 이후 삼성전자와 협력방안 논의를 진척시켜왔고, 그 결과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과 전략을 창출해 냈다.

이와 관련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먼저, 전북도와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서 전북 중소기업이 더 많이 선정돼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전북 수혜 기업 수는 연간 약 10여개에서 30여개로 늘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기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주도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와 삼성전자, 스마트CEO 포럼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 사업이 가동되면, 전북도내의 중소기업의 수혜 범위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북도-삼성전자-(사)스마트 CEO포럼은 중기부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서 전북기업 수혜대상의 확대, 전북 독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포용적 혁신을 위한 삼각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삼성전자는 전북형 삼성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발굴, 사전 컨설팅, 기술지원, 전·현직 멘토 지원에 적극 협력하며, (사)스마트 CEO 포럼은 전북형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 홍보, 희망 기업 발굴, 멘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전북,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조혁신 1번지 도약! 전북형 삼성 스마트 공장 300개 구축(2023~2026년)'이란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도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4개 시군과 함께 전북형 스마트 공장 구축 협력 △전라북도-삼성전자-(사)스마트 CEO 포럼간 삼각 공조 유지 △기업 발굴에서부터 컨설팅, 현장혁신,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의 의지를 확인하고, 삼성전자와의 협력과 결속을 상징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제조혁신에 헌신할 삼성전자 멘토 3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삼성전자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이미 그 성과가 입증돼 왔다. 멘토들이 직접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혁신을 진행하는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은 생산성, 매출, 고용이 증대되고, 불량률은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대기업 유치 노력, RIS 등 인재육성 전략과 더불어, 전북경제의 생태계를 진화시키는 한 축으로 자리잡아 포용적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민·관 협력의 전북형 삼성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전라북도를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대기업 유치와 더불어, 도내 기업들의 성장을 함께 추구하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새로운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 센터장도 "삼성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전라북도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도와 기업성장과 전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 사후관리까지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부, 새만금 잼버리 총력 지원

서울청사서 잼버리 점검·지원 TF 1차 회의 열어

매달 대회 준비상황 점검·정부 지원 필요사항 논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이하 잼버리TF)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 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하계 휴가철과 겹쳐 공항과 잼버리 대회장간 이동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차질없이 참가자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잼버리 기간을 포함하고, 개·폐영식, K-POP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시 인파관리대책,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해충방제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 우리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IT강국 코리아의 면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K-POP 콘서트 등을 통해 한류 지속 확산의 기회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고궁·전통사찰 등 지역별 역사·관광 명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와 협력·개발해 해외 참가자들에 사전 안내·홍보하기로 하였다.

잼버리TF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역대 최대규모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현재 영국 4,465명, 한국 2,411명, 독일 2,200명, 미국 1,072명 등 전세계 152개국 4만1,0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기회로, 부산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는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

5월 15일까지… 고향사랑 답례품·특자도 특례 발굴 등 주제

전북도는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테마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 도민 제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금활용 방안', 공무원 제안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의 도약을 위해 '더 특별한 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 발굴'을 각각 주제로 선정했다.

도민 제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기금 활용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제안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열기 위해 혁신성장·인재거점·균형발전·자치분권 분야에서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 대상은 도민 부문의 경우 전라북도 도정에 관심을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부문은 도내 공무원(시군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과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